

최흥만-표도르 대결 31일 일본서 열린다

‘테크노 골리앗’ 최흥만(27)과 ‘얼음왕제’ 표도르 에펠리아네펬코(31·러시아)의 맞대결이 확정됐다.

K-1 주최사인 FEG 관계자는 13일 “표도르의 소속 단체인 M-1 글로벌 측에서 최흥만과 대결을 요청했고 최흥만이 이를 받아들여 연말 돌의 대결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프라이드 마지막 대회 ‘아렌노카! 오미스카’ 주최 측도 이날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흥만과 표도르가 31일 일본 사이타마 아레나에서 열릴 경기에서 맞붙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18cm의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최흥만과 세계 최강의 파이터로 꼽히는 표도르의 ‘빅 매치’가 성사돼 세계 격투기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천수 돌아와 기쁘다”

페예노르트 고위 관계자

시즌 중 휴가를 얻어 일시 귀국했다 복귀한 이천수(26·페예노르트)에 대해 소속팀 고위 관계자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기쁘다”며 반겼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의 피터 보츠 기술이사는 13일 현지 ‘스포츠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그리 즐겁지 않은 네덜란드를 떠나기 전까지 어두워 보였던 이천수가 한국에서 2주 휴가를 마치고 쾌활한 모습으로 팀에 다시 합류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팀에 합류한 그는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 활발하고 열린 행동을 보여줬다”며 “계속해서 이천수가 그런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보츠 기술이사는 “이천수는 귀국하자마자 자진해서 팀 훈련에 합류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그는 ‘다시 훈련에 참가해 기쁘며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팀에 보탬이 돼 팬들과 구단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14일(금)
 ▲2007 타지 월드 챌린지 <1R>(05:00·SBS골프)
 ▲2007 대학배구대회<한국청팀> : 한국백립(13:50·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신세계)(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KTF : KCC)(18:50·SBS스포츠·XSPORT)



골문 앞 볼 향한 집념들 13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최종전 아스널과 슈테이아우어의 경기에서 아스널의 에보우에(왼쪽 두번째)가 헤딩을 시도하고 있다. 아스널이 2-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북한 전력 파헤쳐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진출을 목표로 출범한 ‘허정무호’가 전력탐색전의 첫 상대로 북한 축구를 주목했다.

허정무 감독은 13일 “중국 톈징에서 열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북한의 4.25 축구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정해성 수석코치를 오늘 저녁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14일 오후 2시 중국 윈난성 톈밍 훙타스타디움에서 4.25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번에 인천과 맞붙는 4.25팀은 북한 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명실상부한 북한 내 최고의 팀으로 2006년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도 대표팀의 주축을 이뤘다.

2010 월드컵 지역예선 첫 탐색 대상 지목 오늘 중서 인천과 경기...정해성 코치 파견

내년 3월26일(원정)과 6월22일(홈)에 북한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2차전 및 6차전을 치르는 허정무호는 이번 인천-4.25팀전이 북한 축구의 실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현재 축구협회는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 상대인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요르단의 전력분석용 경기 비디오 확보에 정

성을 쏟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차 예선 몽골전 경기 비디오를 몽골 축구협회에 일찌감치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정해성 수석코치가 직접 4.25팀 경기를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전력분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

다행히 북한은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내년 3월26일) 원정에 앞서 내년 2월 20일 2008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컵 2차전에서 만나는 만큼 여유를 갖고 분석 작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요르단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경기 비디오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훈련을 치르면서 네 차례 평가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대표팀은 예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전지 훈련지를 고려했지만 평가전 상대가 마땅치 않아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감독이 예상보다 전지훈련 일정을 앞당긴 것은 내년 2월6일 예정된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1차전 경기에 대비한 ‘허정무호’의 소집훈련 일정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박성화호 내년 1월 7일부터 3주간 스페인 전훈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의 꿈을 키운다.

박성화 감독은 13일 “내년 1월 7일부터 3주 일정으로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기로 했다”며 “현재 두 군

데 장소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전지훈련 인원은 2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명단을 놓고 최종 훈련 참가자를 고르고 있다. 20일 이후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3주 동안 전지

맨유 5승1무조 1위 16강 진출팀 확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다.

맨유는 1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AS로마와 2007~2008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1-1로 비겨 조 1위(5승1무점 16)로 16강행을 확정했다.

이로써 챔피언스리그 16강 토너먼트에 오른 팀이 모두 정해졌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상대를 배정받은 뒤 내년 2월과 3월 2차례 대결로 8강 진출을 다룬다.

다음은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팀.

▲A조=포르투, 리버풀 ▲B조=첼시, 샤키04 ▲C조=레알 마드리드, 올림피아코스 ▲D조=AC밀란, 셀틱 ▲E조=바르셀로나, 리옹 ▲F조=맨유, AS로마 ▲G조=인터밀란, 페네르바체 ▲H조=세비아, 아스널

“박지성 컨디션 극 실전투입 준비 끝”

맨유 퍼거슨 감독



부상으로 오랫동안 그라운드에서 떠나있던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실전 투입 준비를 마쳤다.

13일 영국 맨체스터 지역 신문 ‘맨체스터 이브닝뉴스’에 따르면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사진)은 “박지성은 지난 일요일(9일) 연습경기를 뛰었다. 그는 단연 돋보였다”며 박지성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확인하고 기뻐했다.

특히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 13일 오전 열린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최종전 AS로마(이탈리아)와 원정경기(1-1 무승부)에 출전이 가능했을 만큼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무릎 부상으로 지난 4월 이후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한 박지성이 복귀 준비를 마쳤음을 다시 한번 알린 셈이다. 일단 “우리는 박지성을 다음 주 2군 경기에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퍼거슨 감독은 “그는 언제라도 1군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은 오는 23일 열린 에버턴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000원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난방비 1/3로 줄었다!

한정수령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0원~300만원까지 무상지원금

TEMPIA 082) 955-4222 080-701-7117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신체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

시모스피라

대표특수점 0822221-1760, 현대특수점 082610-7851, 최고가구매센터 0822068-5800, 강남점 082627-1575